

이것을 보면 螭首에 碑가 드러 맞지 않게 된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太子洞이 太子寺址로 推定은 되나 이 龜趺와 螭首가 即 朗空大師碑에 屬했던 것이라 는 點에 對하여는 十分의 疑心을 품게 되었다. 同寺址에는 此外에 다른 遺物이 눈에 띄지 않아 附近을 다 시 精査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襄陽出土青銅製菩薩坐像

鄭 永 鎬

지난 十一月 二八日 午後三時頃 江原道襄陽郡襄陽 面連昌里 山麓에서 高柱學氏(四五歲) 外 四名의 古鐵蒐集者 一行에(註1) 依하여 古鐵探知機로 探索中 出土되어 다음날인 二九日 午前 同郡 教育廳에 申告된바 그 후 곧 收拾되었는데 筆者가 이곳을 訪問時(十二月 八日) 現品을 調査할 수 있었다.

前記한 出土地點과 그 넘어 一帶를 俗稱「佛堂골」이라 하는데 洞民들



의 말에 依하면 本來 이곳에는 큰 石佛이 있었다고 한다. 佛像은 總高 二六·五cm의 青銅製菩薩로서 蓮華臺座上에 結跏趺坐하였다. 臺座는 異例的인 三角形으로서 各角(角)를 둥글게 하였으며 中臺는 없고 下端部에는 一段의 굽돌리를 細彫한 위 上 下臺에 相對的으로 單葉 十三瓣의 仰伏蓮을 陽鑄하였다. 蓮瓣內는 모두 瓣端便에 귀꽃모양의 裝飾이 있는데 上 下臺의 蓮瓣은 前面과 左右面만으로서 後便(三角臺座의 隅지點)에 이르면 無紋이다 相好는 圓滿하며 口唇과 양눈에는 若干의 微笑가 어리었다. 白毫는 없고 三道가 돌렸으며 兩眉眼이 또렷한데 鼻樑에 若干의 磨痕이 있음은 遺憾된 일이다 寶冠에는 全面에 瓔珞을 滿鑲하여 한편 걸게는 리워진 兩耳의 귀거리와 잘 어울리어 더한층 華麗한 印象을 준다. 通肩으로서 衣文은 양쪽 무릎과 앞자락에 까지 流麗하며 목걸이와 全身에 휘감은 瓔珞은 胸前과 臍前에서 結束되어 左右로 느리워져 마치 帳幕의 玉鏤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兩腕에는 腕釧에 連하여 立狀 蓮葉과 연봉의 彫飾이 있는데 그 以下部가 缺失되어 手印을 알 수가 없다. 胴體에서 흐른 衣文은 양무릎으로부터 두자락식 길게 느리워져 左右對稱으로 下臺에 까지 흘렀고 後部에는 結束된 三條의 連珠文帶가 上臺面까지 내려졌다. 背面에 있어서 頭部는 寶髮의 結束部分 바로 밑에 귀꽃紋(鬘形紋樣)이 있고 兩肩에 걸치는 間地에는(목도리式文帶) 唐草文이 線刻되어 있어 注目되었다. 底部는 內空이며 全面에 靑綠鏤가 덮혔으나 兩腕의 缺損外 臺座等 各部分이 完全한데 下底部와 곳곳에 木炭片이 附着되어 있으므로 보아 人爲的인 埋藏品이 아니었는가? 짐작된다.

上下對稱的인 橢圓形의 臺座와 坐像이 一石으로서 造成된 類例는 堤川郡月岳山 德周寺址의 石製小像(註2)에서 볼 수 있는바인데 이러한 變形의 臺座樣式은 羅代의 八角圓形 및 方形等의 通式으로부터 時代가 降下되는 바로 짐작된다. 이 菩薩像은 寶冠이나 相好等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 cm……坐像高 二〇·二 肩幅 七·五 膝高 二·二
臺座高 六·三 胸幅 四·五 膝幅 十二·二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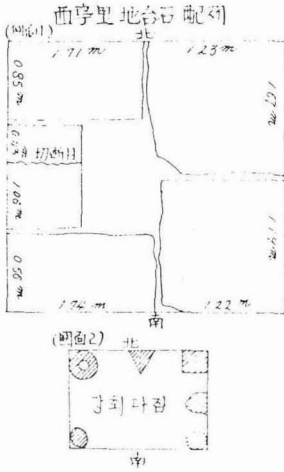
註1, 襄陽面南門里 襄陽古物商에서 이난선 김삼도 최창선 김도한等 四名과 同業하고 있음

資料

青陽定山九層石塔의 補修

洪 思 俊

青陽定山面西亭里塔補修工事は二十一日에 完了하였다. 石材는 定山에서 十里外에서 運搬한 것을 알겠고(古老談에 東十里에 이같은 石材가 있다할) 治石도 매우 끔계 하였으나 塔의 身部 屋部가 均衡을 잃어서 積石에 困難을 받았고 박징鐵片이 比較的 많이 들었다. 屋蓋石의 上下層이 斜綫을 갖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는 塔身도 薄厚가 있고 四面이 同一尺數가 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基壇 臺石도 前面만 一石을 保有其他面은 잇물리어 配石하였고 眼象文은 南 北面에 左右로 잇으나 東面은 眼象內 花文이 셋 西面은 一個가 不足하였다. 地臺石은 높이 30.5 cm 內外에 圖面(1)과 같이 되었다. 中央은 空間에 土石을 充滿시키었고 地下 二尺餘에는 강회와 白土로 다져있는데 基壇보다 若干 大로 不正面으로 잇었고 圖面(2) 같이 地臺石을 놓기 爲하여 大石으로 四角 에는 박징을 配어 잇었는데 北側은 강회面이 不足해서 土石으로 充當한 關係로 石



이 되었다. 中央은 空間에 土石을 充滿시키었고 地下 二尺餘에는 강회와 白土로 다져있는데 基壇보다 若干 大로 不正面으로 잇었고 圖面(2) 같이 地臺石을 놓기 爲하여 大石으로 四角 에는 박징을 配어 잇었는데 北側은 강회面이 不足해서 土石으로 充當한 關係로 石

塔全體가 北側으로 傾斜된것 같다. 今次 세멘工事로써 그 前것을 그냥 두고 地臺石과 세멘工事を 施行하였고 地臺中央空間도 메꾸었기 때문에 견고하리라고 본다.

青陽定山九層石塔의 舍利孔

黃 壽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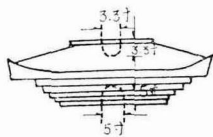
十一月一五일에 着工되어 解體가 이루어졌다. 이 塔에서는 舍利藏置가 (註1) 期待되어 왔으나 上層 基壇甲石의 上面中央部에 青銅破片(大小約二十片)만이 남아있어 數年前에 盜難된 것으로 判定되었다. 舍利孔 第一塔身 下面中央에 안으로 앞은 一段의 턱을 들린 圓孔(徑十四cm 깊이十五cm)으로서 破片으로 미루어 青銅圓筒形器(註2)가 藏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같은 藏置方式에 대하여 附近 住民들은 「鐵柱」가 數年前까지 들어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工事中 下寺(左書陽刻)라는 銘 平瓦片이 發見되었는바 俗稱 「독야塔」이라고도 한다. 이 工事의 監督官은 洪思俊氏이며 筆者가 立會하였다.

註一,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 六四二頁 青陽郡西亭里石造九層塔條
 註二, 「博物館陳列品圖鑑」 第九輯에 보이는 忠南牙山石塔發見의 圓筒容 器와 同形의 것으로 생각된다.

淸涼寺三層石塔의 舍利藏置孔

金 禮 庚

陝川郡伽倻面繼仁里淸涼寺의 三層石塔은 一九五八年에 修理를 하였는바 一層屋蓋石 上下面에 舍利藏置孔을 가지고 있는 好例로서 一, 三層屋身石에는 別다른 加工이 없 다고 한다(寶物 二六六)



淸涼寺塔의 舍利孔